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마이클 샌델)

마이클 샌델이 다시 한 번 우리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무엇이 정의인가(JUSTICE)'에서 정의를 보는 관점을 보여주고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주었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에서는 가치 판단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 즉 시장 중심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까닭은 재화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이보다도 성공한 방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주의는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해주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은 브레이크를 밟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의문을 던진다.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고 형성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거래 행위가 물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생겼다. 시장과 시장가치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은 영역으로 확장 되었으나, 그에 대한 도덕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만족하는 선택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시장의 매력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분짓지 않아 가치 판단에 혼동을 주고 사회를 타락시킬 수 있다. 우리가 계속 도덕적 판단을 기피한다면 물건(또는 재화)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공적 담론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끊임없이 고찰하길 바란다.

ANKOOK UNIVERSITY